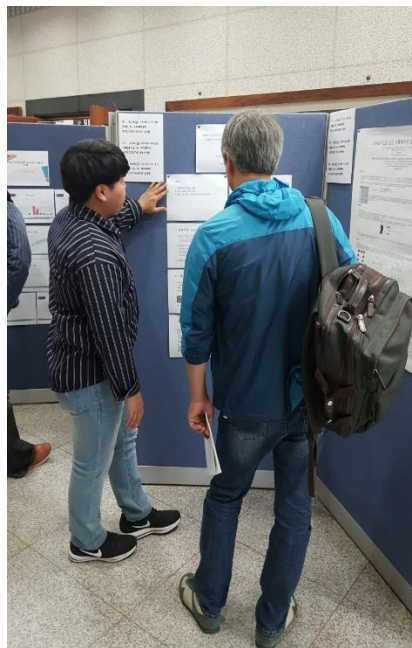


2017 춘계학술발표대회 Trip Report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134270 김지용



유난히 바빴던 중간고사가 끝나고, 연구실에서 '스몰베이직 언어 기반 교육용 인공지능 프로그램 작성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승완이형, 성모와 팀을 이루어 한국정보처리학회에서 주최하는 학회를 다녀오게 되었다. 저번 평창에서 열린 학회에 참가할 때는 가영이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엔 내가 발표를 맡게 되어 많이 긴장이 되었다. 열심히 발표자료를 검토하며 심사위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거의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아서, 우리 논문을 관심있게 읽고 계시던 분께 "설명해드릴까요?"하고 여쭙보고 우리가 한 연구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렸다. 설명을 듣다가 질문도 해 주시고, 자신의 의견도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코딩 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 혹은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 같아 보였다. 발표자를 맡은 건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었지만 막상 설명을 하는 중에는 긴장도 풀리고 오히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설명한 것 같다.

이번 학회는 발표자를 맡게 되어 발표 준비를 하느라 다른 팀이 연구한 주제는 읽어보지도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새로 우리 연구실에 들어온 세영이랑 문영이랑 어색했는데 이번 학회를 통해 많이 친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

Trip Report

박세영

학회를 참여하고 발표한다는 것이 처음이라서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주도로 출발하고 발표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또한 학회장 분위기가 많이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가니 자유로운 분위기가 많이 느껴져서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붙이고 시간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니 긴장이 되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학회라는 자리가 처음이었고 평소 발표하는데 자신이 없는 편이어서 남들보다 더욱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동안 지정된 자리에서 계속 발표 연습을 하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꽤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였지만 심사하시는 분도 보이지 않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기에 갑자기 긴장이 풀리며 마음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 옆을 보니 갑자기 제 앞 순서가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심장이 마구 떨리고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발표 차례가 되고 심사위원 분이 오시고 준비했던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연습했던 것보다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하시는 분께서 잘 들어주셔서 조금 더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끝나치고 자리를 지키며 종종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또한 다른 팀들의 자료들도 구경했는데 참신하고 눈에 띄는 아이디어들도 있고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온 팀들도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고, 다음 학회에서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회가 끝나고 나서는 길은 조금 허무했습니다. 너무 떨어져서 발표 시간 안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전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도 학교 수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매우 즐거웠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회장에서도 여러 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고 배울 수 있었고, 또 평소에 심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앞에서 발표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비록 완벽하게 하진 못했지만, 제가 발표할 때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발표 습관, 어려운 발음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을 알게 된 것 같아 오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다음에도 꼭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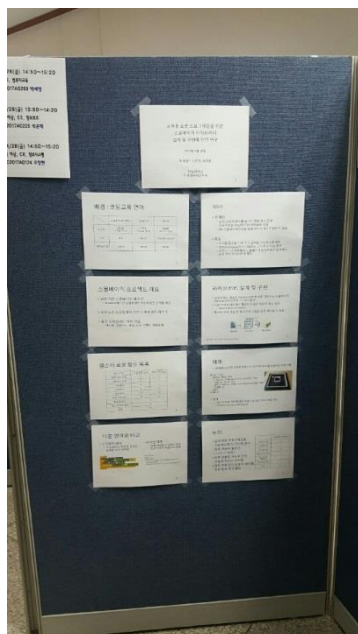


Trip Report_춘계학술발표대회

소프트웨어공학전공 150711 조문영

2017년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연구한 '교육용 로봇 프로그래밍을 위한 스몰베이직 라이브러리'를 주제로 한국정보처리학회에서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하였다. 발표는 세영이가 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참가하였다. 제주대학교에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세영이가 연습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우리는 발표자료를 ppt로 제작하여서 A4용지사이즈로 미리 출력해와서 붙였다. 다른 발표자들은 여러가지 형식의 발표자료를 준비하였다. 발표자료를 붙이는 곳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사이즈로 천재질에 크게 출력한 팀도 있었고, 논문을 한페이지로 짧게 줄여서 A1용지 사이즈로 준비한 팀도 있었고, 발표자료를 ppt로 제작해서 A0사이즈로 준비한 팀도 있었다. 하지만 역시 짧은 시간동안 연구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한 ppt형식이 가장 좋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발표자료는 사진자료가 많은 것이 이목도 많이 끌었다. 발표자는 어린 학생들부터, 학부생, 대학원생 등 연령층이 다양하였다. 우리 팀은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는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안에 우리의 연구내용을 발표해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3분 남짓한 시간동안 우리가 진행한 내용을 충분히 발표하는 발표자를 보고 안도감을 느꼈다. 발표를 듣던 평가위원은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을 더 질문하였다. 또 다른 평가위원은 단지 발표 자료들만을 빠르게 읽으면서 지나가셨다. 다른 학회 참가자들도 우리 팀의 자료를 읽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연구한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내심 뿌듯했다. 다른 팀의 발표자료들도 빠르게 보았는데, 흥미로운 자료가 많이 있었다. 특히 우리의 포스터를 붙인 부분의 근처에는 우리와 같은 분야인 컴퓨터교육관련 연구 발표자료들이 있었다. 바로 옆의 패널에 '증강현실 기반의 과학교육'을 주제로한 것이 있었다. 그 팀은 발표자료에 길이 갔다. 다음에 다시 간다면 발표자료를 더 잘 준비하고 발표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3D그래픽관련 사진이 많이 있어서 눈



'한국정보처리학회 - 2017춘계학술발표회'를 다녀와서

134257 정승완



'스몰베이직 언어 기반 교육용 인공지능 프로그램 작성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국정보처리학회에서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회에 참가했다. 저번 연구와 달리 이번 연구는 오직 3명에서 작업을 하여 끝을 내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학부생 3학년 김지용 학생이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비록 심사 위원에게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연구에 관심이 많은 분에게 연구내용을 알려드려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김지용 학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을 텐데 발표를 관찮게 했던 것 같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발표회를 참석하여 처음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였는데 역시나 전공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의 연구들 보게 되어서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다. 이번 춘계학술발표회는 시간이 30분밖에 안되어서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를 많이 보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역시 색다른 경험이었고 전공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이나마 더 넓어진 것 같다. 그리고 덤으로 제주도의 경치를 보게 되어 아주 만족스러운 일정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혹시 다음번에 또 학술발표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발표할 기회도 가지고 관심이 있는 튜토리얼도 들어야겠다.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Trip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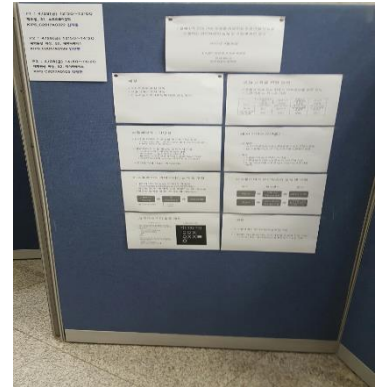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134239 조성모



‘스몰베이직 언어 기반 교육용 인공지능 프로그램 작성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학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 올 해 겨울방학부터 연구에 참여하여서 몇 개월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뿌듯했다. 처음 가는 학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느낌을 받았다. 그곳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를 주제로 참가한 수 많은 학생 및 학회 관련자 분들이 계셨다. 그분들의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그분들도 노력했을 것을 생각하니 마치 함께 연구를 한 것처럼 뿌듯하기도 하고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을 축하해주고 싶기도 하였다. 아쉽지만 약간의 구경을 마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발표 자료를 발표 할 위치에 붙이는 것 이였다. 아직 다른 곳에는 발표 자료가 개시가 안된 상태였지만 일단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붙였다. 그리고 약 3~5분 정도의 발표를 통해 평가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팀의 발표자인 지용이는 발표 연습을 하였고, 승완이 형과 나는 지용이가 연습하는 것을 도왔다. 지용이는 학회가 처음이 아니지만 발표를 맡아서 약간 긴장한 모습 이였다. 하지만 우리 연구에 관심을 갖는 분들과 지용이가 잘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긴장이 다 풀린 것 같았다.

솔직히 나는 연구를 해본 적도 처음이고 학회를 가본 적도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연구에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기는 할까?' 라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포스터 발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학회에 오신 분들이 우리 연구에 대해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서 매우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더 열심히 준비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되었고,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생겼다.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Trip Report

일시 : 2017.04.28 ~ 2017.04.29

소프트웨어공학전공 142661 김가영



지난 동계학술발표회 이후 겨울방학 동안 진행되어 온 스몰베이직 결과물에 대해서 한국정보처리학회에서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첫 날은 컨벤션 홀에서 포스터 발표가 이루어졌다. 다른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기도 하며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포스터를 둘러보기도 했다. 세영이와 문영이가 개발한 햄스터 로봇과 연동가능한 스몰베이직 라이브러리, 지용오빠, 승완오빠, 성모오빠가 개발한 Weka를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 스몰베이직 라이브러리 발표를 들어보았다. 다들 차분하게 준비한 내용을 잘 발표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날 있을 구두발표가 떠올라 긴장이 되었다.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다. 마지막 날은 준비한 논문을 구두 발표하게 되었다. 전남대학교 김경백 교수님 연구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긴장을 조금씩 풀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하는 구두발표에 마지막 순서로 발표하게 되어 기다리는 내내 긴장되었다. 결국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주어져 실수를 반복하며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같이 연구를 진행해온 사람들을 대표해서 발표하는 만큼 준비가 철저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해졌다. 다음 학회에서는 충분히 준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